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복의 근원 강림하사(찬28/새28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여홍평 집사 2부/김정태 장로 3부/김진성 장로 4부/오새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깨뜨린 옥합(작곡 이현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All together 다같이  
1부/요한복음 20:24-29 2,3부/ 창세기 1:31 4부/마가복음 16:9-20
- 말씀 Message ..... Rev. Kwan Jae Yu 유관재 목사  
1부/ 도마의 믿음  
2, 3부/ 회복의 드라마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7) 꼭 하고 싶었던 말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 헌금 특송(2,3부) Offering Song..... Sung Chan Chang, Cellist 장성찬(첼리스트)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아이러니한 하나님 나라

## Irony of God's Kingdom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이고 폭발적으로 펼쳐짐과 동시에 그 출발점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고 임하였지만 사실 그 시작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고, 징그러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안의 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던 모습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행 11:19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즉 이 스데반의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아이러니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 형성과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행 11:20-21에 보면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소위 말하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 소개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이에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논리와 탁월한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에 의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사노 요코라는 일본 작가의 글귀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꽃 한 송이의 생명조차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나 자신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사실이다'. 노년에 깨닫는 바, 인생은 아는 것도 아닌, 모르는 것도 아닌, 아이러니라는 사실이 참으로 공감이 되는 글귀였습니다. 결국 이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의 아이러니라고 읽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 속에 있습니다.

Work of Holy spirit is truly ironic. God's Kingdom unfolds in dynamic and explosive ways. Yet, we discover that the beginning was very weak. God's Kingdom was proclaimed and came to us through Jesus. However, the beginning was at a stable in Bethlehem. It started from a body of man filled with disgusting sins.

After Jesus died on the cross, then resurrected and ascended, through apostles and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number of believers in Jerusalem increased explosively. However, after the incident of Stephen's martyr by stoning, the gospel that was confined to Jerusalem and region of Judah was spread beyond the barrier called Jews. In Acts 11:19,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in connection with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we learn that in the wake of Stephen's incident, gospel was preached in far off regions from Jerusalem.

Another surprising irony is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formation of Antioch church and gentile missions by those who have not heard and seen Jesus. According to Acts 11:20-21,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Their names(jargon: those who have not heard, not seen) are not even mentioned. Gospel was preached to gentile Greeks by the men from Cyprus and Cyrene, and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ironically forming a church.

This exciting history of God's Kingdom and spread of gospel did not depend on some unique logic and superb strategies. It unfolded ironically, and that in itself is an irony. As we learn deep insight of this irony, we gain even deeper insight. Recently, I enjoyed reading a phrase by Japanese writer Yoko Sano. "I don't know anything. I cannot even understand the life of a single flower. All I know is that I will die without even grasping who I am." Average person realizes in old age that, life is not about knowing or not knowing, it is an irony. It is a writing that I can relate to. I wonder if this irony is the way God works.

We cannot understand God. We may read this as irony. But, the irony is God's amazing providence and greatness. We are in His greatnes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유관재 목사

1부: **도마의 믿음**      요한복음 20:24-29

2-3부: **회복의 드라마**      창세기 1:31

적용하기



지역-주차

# 주일의 첫인상과 마지막 지킴이로 감사



주차사역팀은 교인과 방문자들이 원활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 차량유도, 비전주차장 셔틀 운행 유지와 안전 운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준비하는 것이 주차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와 모든 사역은 주차장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올해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신 열 두분이 주축이 되어서 네 분의 장로님과 이십여 명의 봉사자들이 주일 새벽 5시에 본당과 비전주차장에 주차 안내판과 콘 설치를 시작하고, 비전주차장에 오시는 목회진과 봉사자들을 뱅으로 교회까지 모셔드립니다. 1부/2부/3부 예배 전후에 본당과 비전주차장에서 차량을 유도하고, 주차장에서 교회로 가는 7대의 뱅, 교회 버스 3대, 외부 스쿨버스 3대의 안전 운행과 시니어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버스 배차를 지원합니다. 2시 30분까지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설치된 주차안내판과 콘을 회수하면서 주차 봉사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순종하는 봉사자들과 겸손하게 안내에 따르는 성도들로부터 참된 크리스천의 향기를 맡고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해 첫 주 열새 때 많은 봉사자들이 추운 날씨에 온몸이 다 젖었는데도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모습에 깊이 감동합니다. 방문자나 새가족분들도 어색함 없는 주차장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나 안전사고 없이 잘 운행되기를 기도하고, 봉사자들의 헌신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것을 소망합니다.

문의: 박세환 집사 (949)-887-6944

### <주차사역 봉사자 간증>

많은 성도님이 교회를 오고 가실 때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잘 섬기려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의 수고하심은 말씀과 격려로 큰 감동과 힘을 얻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사역으로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사역을 섬기시는 여러 동역자들과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형 집사

주차장이 주일 예배의 시작인 만큼 은혜로운 예배를 돕기 위해 미소와 친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는 주차사역 팀장님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더욱 도전받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최재호 집사

베델의 모든 지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으며,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섬기고 있습니다. 주차사역 후 예배를 드릴 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황미동 집사

교회를 오시는 모든 성도님께 좋은 첫인상을 드리는 주차봉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맡겨 주신 이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화답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감동합니다.

박호성 집사

봉사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시는 여러 성도님을 보며 부끄럽고 나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주차사역을 통하여 사랑과 헌신의 주님을 본받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준혁 집사

주차사역 오리엔테이션에서 지난해 팀장님이 해 주신 조언이 생각납니다. 주차 봉사자들은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입구에서 제일 처음 보는 얼굴들이며 출구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는 얼굴들이니 항상 미소와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미소와 배꼽 인사로 주차장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김정범 집사

예배는 단지 은혜를 받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임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즐거움과 전심으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같은 자리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허윤호 집사

주차 차량 봉사사역을 섬기며 느끼는 것은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재호 집사

새벽 비전주차장에서 동역자들과 기도로 시작하고 안내판을 세우며 베델의 깃발을 꽂을 때면 마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 경건한 마음이 들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길 기도하게 됩니다. 이른 시간부터 나오시는 목회자들과 봉사자들을 교회까지 모셔다드릴 때면 예배를 위해 조금이나마 쓰임 받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베델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새벽 미명의 쌀쌀함을 훈훈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석배 집사

주일마다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고 인사받는 기쁨이 큼니다. 짧은 소통이지만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최혁성 성도



#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으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이전에 다른 셀에 속해 있었는데 다른 가정들이 타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저희만 남게 되어, 이전 셀목자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 인도해 주신 셀이 지금의 셀 '사랑과 소명' 셀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저에게 딱 맞는 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셀모임에서 만났던 셀식구분들의 인상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들인 거 같아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 주일 예배 후 함께 식사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의 여러 봉사로 바쁜 가운데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셀모임을 섬겨주시는 신실하신 셀목자님 부부의 인도로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

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셀모임을 합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질 때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주는 셀식구들과의 나눔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저의 믿음도 말씀을 통해 자라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슬픈 일에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과 소명' 셀이름은 셀목자님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을 생각하며 지었는데, 셀이름도 하나님의 사



랑과 소명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과 소명' 셀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셀목자님과 셀식구들처럼, 저도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심진희 집사

## 사역 - 셀목자 정기모임

# 203개의 셀이 참여한 상반기 정기모임



셀목자 정기모임은 저에게 진정한 셀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우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박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셀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고 셀에서 상처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위로받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힘을 주는 셀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팀장님과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벽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국밥과 생일에 맞춰 나누어 주신 선물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 셀



목자 정기모임을 사모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종선 집사

셀목자는 주 안에서 한 영혼을 품으며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삶으로 셀가족의 본이 되고 있는지 부끄럽지만 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셀목자 정기모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의 시간이 되었고 갈 바를 잡아주는 길잡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셀모임을 재현하여 보여주셨을 때는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영상을 통해서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한 화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더 나은 셀 모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었지만, 말씀으로 나를 더 깊이 점검하고 셀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은옥 권사

짧지 않은 시간 셀가족을 섬기면서 셀리더들을 위한 한 달의 두 번의 정기모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며 깨닫고 배우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다양한 분야를 소개해 주심으로 소통의 부재나 열지 못한 마음으로 셀가족 어느 한 분에게라도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저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잠시 돌아볼 시간도 가졌고 저 또한 셀원으로써 셀가족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밀어주고 이끌어 주고 손잡아 주며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았는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보내주신 손 편지 카드는 오래간만에 특별한 저를 만들어 주신 듯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석한 셀목자들에게 뜻깊으며 유익한 시간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명신 권사

교회학교 - 소망부

# 사랑의 천국 잔치

올해로 38회를 맞은 사랑의 마당 축제는 남가주에서 소망부 혹은 사랑부로 불리는 발달장애 부서가 있는 각 교회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음식들을 한 가지씩 가져와 야외마당에서 나누는 발달장애우들의 축제입니다. 이번에는 감사한인교회가 자원하여 장소 제공을 하여 더욱 감사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고 스타디움이 있어서 그곳에 앉아 쉬면서 공연 관람을 하였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자 각 교회에서 준비해 오신 갖가지 음식들이 모두 야외에 차려졌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다니며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닭강정을 준비해서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맛에 승부를 걸고 음식을 내놓았는데 줄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가져간 학생들이 또 와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배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기쁨으로 섬기시고, 우리 친구들도 팽귄을 연달아 외치며 즐거워하니 '천국 잔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을 많이 가져다 놓는 친구들도 있었고, 트램폴린에서 뛰놀며 즐

거워하던 우리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각 교회와 축제를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기쁨으로 섬기시는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해맑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정민 전도사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부터 소망부 토요학교를 섬기게 되었고 처음으로 소망부 친구들과 사랑의 마당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밝게 웃고, 신나는 찬양에 춤추고, 정성으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천국 잔치가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축제에 셀 수 없이 많이 오신 봉사자들을 보며 소망부 섬기는 일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랑의 축제로 올해 소망부 토요학교 학기를

마쳐서 아쉽지만, 곧 있으면 시작될 여름 소망부 VBS와 다음 토요학교 학기에 선생님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김성은 자매



간증 - 수요일예배

#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로 받았던 은혜가 사라질 때쯤 드리는 수요일예배는 주일까지 살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된 수요일예배의 참여는 매주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은 '용사인가? 겁쟁인가?'라는 주제로 박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20절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놓여 있는 영적 전쟁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겁쟁이가 될

수도 있고 용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성경 속의 인물 기드온, 모세, 엘리야를 예로써 겁쟁이가 어떻게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신감주를 입어야 합니다.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영이 임하자 불러주신 대로 큰 용사가 되어 삼백명의 군사로 십삼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헌신감주를 입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시고 고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리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자력 없고 힘없고 나약함을 들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신감주를 입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

님을 대적하는 아합왕 때 선지자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용사 중의 용사,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도 때로는 아합왕이 두려워 피하기도 하였고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다시 서게 하셨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도 많고 소심한 겁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신 사명에 용기 내어 헌신하며 담대히 감당할 지혜 주시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른 손은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걸 믿습니다.

윤은정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더 많은 성도님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제자도의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23년 베델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반(16명):** 고명수, 고화영, 권미경, 김도형, 김소연, 김주희, 박기홍, 박현진, 석민석, 신수정, 안철환, 유재신, 이명선, 이미옥, 이연경, 홍성아

**양육반(29명):** 강명성, 권지희, 김경란, 김민숙, 김인애, 김정범, 김주리, 김희진, 도영란, 류성빈, 민석기, 민썬디, 박철용, 양정규, 오선희, 오승렬, 용수연, 이강오, 이주현, 이지성, 이순종, 이혜성, 임지현, 정효륜, 최미정, 최진나, 하유진, 한성일, 황대경

**양육반 영어권(3명):** Brandon Jung(정봉화), Jason Shim(심재경), Noah Lee(이노아)

**BAM 훈련(22명):** (1단계) 강재형, 김종철, 김주현, 김학남, 김혜란, 김홍우, 배지열, 엄대석, 우경진, 윤명웅, 임진수, 장석우, 정승훈, 정인창, 최재호, 현승원, 황지영 (2단계) 나미현, 이갈수, 이상원, 이수민, 이종선

**58차 전도폭발훈련(18명):** (1단계) 김선경B, 김유진, 박경숙, 박성은, 반주현, 안효원, 윤태경, 채용석, 최해경 (2단계) 강안젤라, 김선희, 김성균, 전미경, 황인수 (3단계) 안예진, 이윤경 (4단계) 송미선, 최동주

**바이블 클럽(19명):** Kevin Ma, 강다연, 김광희, 김소연, 김소영, 김순이, 김아영, 김종현, 김준연, 김휴리, 마현진, 박지연, 유별이, 윤광미, 윤은정, 이수민, 장지혜, 최향란, 황대경

▶ 일시/장소 : 6월 18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7월)	6/18:	①부-김태원	②부-다무라고조	③부-박상곤	④부-윤여훈
	6/25:	①부-김진환	②부-선상균	③부-왕동원	④부-이서원
	7/2:	①부-김학남	②부-윤주원	③부-이국선	④부-이효민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 6/17: 김유호 6/24: 김석열 7/1: 김윤근 7/8: 김정우B

강단꽃(6월) | 6/11: 강재형, 김진희, 송상희, 이희정 6/18: 김유민, 황은아 6/25: 강재형, 김진희, 황순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장한나 다음주 | 의사-이근웅(정형외과), 간호사-주경아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3부 예배에는 성광교회 담임이신 유관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오셔서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2-3부 예배에는 하와이섬포니 수석 첼리스트, 장성찬 형제의 특별연주가 있습니다.

◆ **베델 수요예배**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러지는 수요예배는 박경철 목사의 '구원의 관점(The Perspective)'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1년 또는 6개월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은 제자반, 양육반, 바이블클럽 16주, BAM훈련, 전도폭발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기념촬영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7면 참고)  
일시: 6월 18일(주일) 3부 예배 시

◆ **제10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아래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목)-6월 30일(금)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scholarship@bkc.org

◆ **장학특별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특별헌금을 부탁드립니다. 부모 세대로 겪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계속해서 참가 인턴(2세) 과 봉사자(1세)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7월 10일(월)-13일(목)  
문의: 이상원 집사 (949)677-5540

◆ **베델 사역 지원** 각 예배 후, 코트야드에 베델의 다양한 사역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원하는 부스를 마련합니다. 가진 은사를 따라 베델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베델사역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형석 집사 (949)533-4132

◆ **베델 콰이어 단원 모집** 베델교회의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섬기는 베델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중 연습은 금요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더욱 풍성하고 힘있는 콰이어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형직 목사 (909)964-2537, 오은옥 권사 (714)615-7096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교회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2부, 3부 교사 & TA)와 유년부(3부 한어 혹은 영어 교사)에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 **영유아부 VBS** 사랑하는 모든 영유아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일시: 6월 14일(수)-6월 16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BYM 중고등부 연합예배** 당분간 BYM 중고등부가 주일예배를 연합하여 드립니다. 9시 예배와 11시예배 모두 비전채플에서 드립니다. 기존에 본당 2층에서 예배하던 중고등부 학생들은 비전채플로 오시기 바랍니다.

◆ **BYM 중고등부 'Harvest Crusade'** BYM 중고등부가 7월 1일날 열리는 'Harvest Crusade'에 참석하게 됩니다. Sign-Up은 Google Forms로 6월 18일(주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예살 새가족 환영회** 예살의 새가족들을 위한 환영회가 오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살의 젊은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6월 11일(주일) 오후 5시, 유년부실  
문의: 강수연 전도사 (650)704-4447

◆ **프로젝트 팀장 조찬모임** 베델의 역동적인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프로젝트 팀장님들을 모시고 격려하며 함께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나누는 조찬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 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6월 24일(토) 헬시바 기도회 후  
장소: 비전채플

◆ **기도해 주세요**  
우간다 단기선교가 6월 12일(월)부터 20일(화)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파송기도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민복기 권사님(한상국 집사의 모친, 배경은 집사의 시모)께서 5월 2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윤경희 성도님(서재철 집사의 모친, 서진희 집사의 시모)께서 6월 2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Kwan Jae Yu

Worship 1: **The Faith of Thomas** John 20:24–29

Worship 2, 3: **A Drama of Recovery** Genesis 1:31

Apply to Life

